

## 코퍼스번역학에 대한 일반적리해

손 영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이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는데 맞게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부문들을 세계적인 앞자리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부문들을 세계적인 앞자리에 확고히 올려세우자면 새로운 학문 분야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코퍼스번역학(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은 지난 20여년동안 발전하여온 번역학의 새로운 분과학문이다. 코퍼스번역학은 코퍼스언어학의 리론과 방법에 기초하고있으며 언어학과 번역리론을 리론적바탕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를 수단으로 하며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두 언어의 실재한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서술적번역연구와 코퍼스언어학이 호상 결합되어 번역에 대한 통시적 및 공시적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서술적번역연구 혹은 서술번역학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규범언어학(prescriptive linguistics)에 대치되는 서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과 유사한 관계로 볼수 있다.

코퍼스번역학은 번역연구를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 수단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량적인 코퍼스에 의거한 번역과 관련한 리론을 담고있다.

이 글에서는 코퍼스번역학의 발생발전과 국내외에서의 번역코퍼스의 현 발전실태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코퍼스가 번역연구에 쓰이게 된것은 20세기 90년대초부터이다. 1990년대초까지 번역연구는 주로 언어학적연구방식, 문화적연구방식, 철학적연구방식, 인지적연구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연구방식들은 정성적연구와 정량적연구가 서로 배리되고 리론연구와 언어실천이 분리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정량화기준과 평가방식이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코퍼스에 기초한 번역연구는 이러한 부족점들을 보충해줄수 있었다.

번역학에 대한 코퍼스연구방식의 기초를 마련한것은 영국의 번역학자인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1993년에 발표한 저서인 《코퍼스언어학과 번역연구: 제시와 응용》(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이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두언어대용량코퍼스를 리용한 코퍼스연구방법을 보다 심화시킨다면 번역학자들이 교제매개물로서의 번역의 본질을 밝히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1998년 캐나다의 몬트리올대학이 발행한 번역연구학술잡지 META는 사라 라비오사(Sara Laviosa)가 집필한 도서 《코퍼스번역학: 리론과 연구결과 및 응용》(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nd Applications, 2002.)에 대한 특집을 실고 리론해석과 실증연구 두 측면에서 코퍼스에 기초한 번역연구는 이미 새로운 번역연구방식으로 되었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베이커의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코퍼스번역학은 이전의 번역코퍼스와 코퍼스번역학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앞의것은 대규모의 기계가 읽을수 있는 번역문이 번역연구에 쓰이기 전에 인

공적인 방법으로 원문과 역문을 수집하고 여기에서 번역과 관련된 언어현상들을 대비하고 분석하며 통계하던 시기의 코퍼스를 가리킨다. 후자의 연구형식이 생겨난 후부터는 그 연구범위가 번역과정으로부터 번역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번역현상들을 다 포괄하며 특히 번역의 보편개념, 번역과정, 번역전환과 번역규범, 역자문제, 번역교수론을 다 담게 되었다.

코퍼스번역학은 코퍼스에 기초하여 발전한 새로운 학문이며 코퍼스언어학과 서술적번역연구의 유기적결합이라고 볼수 있다. 코퍼스번역학도 번역에 리용되는 코퍼스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발전되고 완성되었다. 번역학자들이 코퍼스를 리용하여 번역연구를 진행한 때로부터 번역코퍼스는 국제적으로 번역연구분야에서 큰 관심으로 되었으며 몇년사이에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번역학자들은 코퍼스언어학의 연구방법을 리용하여 실지 존재하는 번역자료들을 광범히 수집하였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하여 대규모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로부터 번역의 실지 형식과 특성을 서술하고 현실적으로 번역과정에 존재하는 규칙을 밝혔으며 번역조작의 방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번역연구자들은 코퍼스에 의거하여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리론들을 해명하고 수정하고 해석하러 하고있으며 번역과정에 대하여 더욱 충분히 서술하러고 시도하고있다.

번역연구자들은 각이한 연구목적으로 설계된 번역코퍼스를 3가지 부류로 나누고있다.

첫 부류는 병렬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는 원문과 역문들을 나란히 놓은 코퍼스라는 뜻에서 병렬코퍼스라고 한다. 병렬코퍼스는 언어대비연구에 리용되며 번역연구자들은 어휘와 문장, 문체에서 원문과 역문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휘와 구조상에서의 두 문장의 대응관계를 찾아낼수 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미 구성된 병렬코퍼스에는 영어-프랑스어코퍼스, 영어-이탈리아어코퍼스, 영어-노르웨이어코퍼스, 영어-도이칠란드어코퍼스가 있다고 한다. 병렬코퍼스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번역연구가 규범적관점으로부터 서술적관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을 알게 해준것이다.

두번째 부류는 다국어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는 서로 류사한 설계기준에 따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각이한 언어들로 구성된 복합코퍼스이다. 여기서 자료들은 모두 원문들이며 번역자료가 아니다. 다국어코퍼스는 비교적 간접적으로 번역연구에 기여한다. 번역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되는 언어자료간 호상비교를 통하여 매개 언어속에서의 문형과 문체적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대응역문을 확정, 해석, 평가하는데 참고할수 있는 효과적인 요인들을 밝혀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다국어코퍼스의 가치가 있다. 실례로 조선어의 어떤 표현을 영어로 번역하는것이 어려운 경우 다른 언어들(도이칠란드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중한 표현을 확정할수 있는 실마리나 요소를 찾아낼수 있게 된다.

세번째 부류는 비교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는 영어원문자료와 함께 다른 언어를 영어로 번역한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 있는 두 언어자료들은 사용분야와 언어의 변화, 시간상에서 류사한 특성을 가진다. 비교코퍼스는 번역연구에서 가장 의의가 큰 코퍼스로서 두가지 언어로 된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당 력사문화적환경에서 나타나는 번역기준을 탐색하고 역문자료의 독특한 규칙들을 발견할수 있게 한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기술대학 언어공학부 번역연구집단은 1995년부터 세계에서 처음

으로 되는 비교코퍼스 즉 번역영어코퍼스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번역영어코퍼스는 영어번역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원작들을 영어로 번역한 문서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번역영어코퍼스는 도이칠란드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타이어, 헤브라이어 등 여러 어종으로 되어있으며 소설(81.5%), 전기(14.1%), 신문(1.34%), 잡지(3.06%)의 4개의 코퍼스로 구성되어있고 그 용량은 5천만단어를 이룬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번역코퍼스로서 번역연구와 관련된 코퍼스의 연구와 코퍼스의 응용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됨으로써 번역연구의 튼튼한 분석토대를 마련하였다.

코퍼스번역학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일정한 연구방법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번역학은 원래 언어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에 기초하여 발전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번역리론과 방법론, 번역응용과 같은 번역과정 그리고 번역품질관리, 번역제품관리, 번역유통리 등 번역제품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연구한다.

코퍼스에 기초한 연구방식은 자기의 우점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의 현실적인 언어규칙을 밝힘으로써 두가지 변화를 가져온것이다.

첫번째 변화는 번역연구가 규범적방식으로부터 서술적방식으로 이행하게 된것이다.

20세기 50년대에 번역연구는 규범적방식으로부터 서술적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결국 서술번역학이 생겨났다.

두번째 변화는 언어학이라는 소규모적틀거리에서의 연구로부터 벗어나 사회문화라는 대규모적연구에로의 이행이다. 이 시기는 20세기 5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이다. 20세기 80년대 중반기에 와서 번역연구의 사회문화에로의 전환은 번역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리상적인 번역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보다 현실적인 견해로 바뀌고 번역활동을 다문화교제행위로 보았으며 역문을 목적어문화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번역연구에서의 방식도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전시기의 철학적연구방식과 언어학적연구방식, 기능주의적연구방식, 서술번역학적연구방식, 후기구조주의와 후기현대주의적연구방식 및 문화적연구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번역리론과 실천사이에는 일정한 경계선이 존재하며 번역실천과 번역리론은 서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동일한 번역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번역리론에서 이러저러한 자기 식의 해석은 가할수 있으나 실지 대부분의 번역현상들은 현재의 번역리론에서 완전히 해석되기 힘들다.

급속히 발전하는 코퍼스언어학으로 하여 20세기 90년대 초기 수많은 번역학자들은 역어본문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소설과 같은 역어문학본문에 관심을 돌렸다. 한 번역연구자는 역문을 분석하는 과정에 특정한 요소들이 체계성을 가진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역자의 번역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학자들은 번역코퍼스를 만들게 되었다.

번역학자들은 3가지 요소가 코퍼스연구와 번역연구의 결합을 이루게 하였다고 본다.

첫째 요소는 번역의 보편개념들을 코퍼스를 통하여 검증할수 있게 하였다는것이며 둘째 요소는 코퍼스언어학의 빠른 발전 특히 20세기 90년대초에 다국어코퍼스가 연구되고 발전한것이며 셋째 요소는 서술번역학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게 된것이였다.

코퍼스번역학은 번역연구의 기본핵으로 되어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뚜렷한 성과는 《코퍼스에 기초한 언어의 대비와 번역연구》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토론회

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번역학자들로 하여금 번역과정과 번역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리용되는 코퍼스의 범위와 의미, 효과성과 적합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하였다.

현실적으로 코퍼스는 첫째로 번역교수와 번역교수설계, 번역교수평가에, 둘째로 번역보조수단(실례로 사람번역에서 유사한 번역례문을 쉽게 찾아 리용하게 하는 번역기억체계 즉 Translation Memory = TM)으로, 셋째로 번역문평가와 번역비평가, 넷째로 번역보편개념의 갱신발전에 리용된다.

번역연구에서 각이한 유형의 코퍼스는 각이한 목적의 연구에 리용된다. 실례로 한 언어가 어떻게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병렬코퍼스는 번역과정에 대한 연구에 실제적인 증거들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코퍼스는 통계에 기초한 기계번역체계(SBMT)와 두 언어사전 및 번역기억체계(TM)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된다. 병렬코퍼스는 전문번역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비교코퍼스는 전문번역원들이 번역분야에 대한 이해와 련관되는 역문의 유연성, 정확한 단어선택, 적중한 언어표현 등 번역의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술용어자료기지구축에도 리용될수 있다.

역문코퍼스는 번역연구와 번역보편성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할수 있다. 매 역문들에 사회언어학적 및 문화적정보를 담은 부가표식을 달면 이러한 역문코퍼스는 번역의 사회문화환경을 연구하는데 리용되게 된다.

원어와 역어의 단일어종코퍼스도 번역연구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것들은 전문번역원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며 번역작업에서 효률이 매우 높은 참고수단으로 된다. 병렬코퍼스와 결합된 번역평가코퍼스를 구축하면 전문번역원과 번역심사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번역문을 평가할수 있게 한다.

현재 코퍼스와 코퍼스언어학, 코퍼스번역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코퍼스에 기초한 언어대비와 번역연구가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우리는 코퍼스번역학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번역연구와 번역실천, 번역교수에 받아들임으로써 외국어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코퍼스언어학, 코퍼스번역학, 번역보편개념